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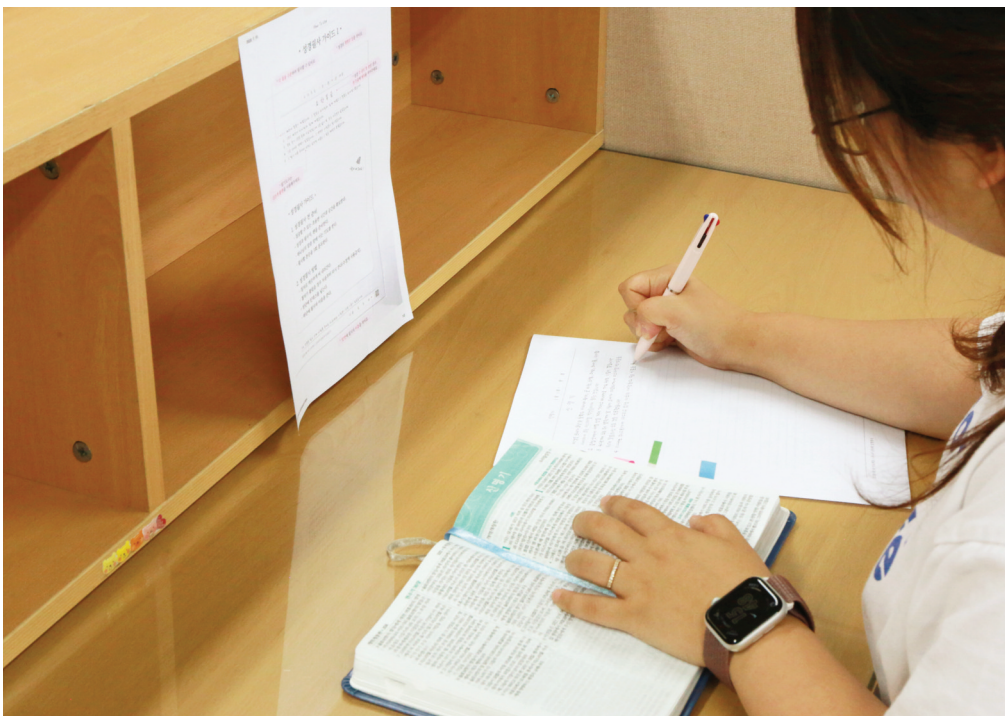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0년 7월 12일(주일) 제1303호



SNS공동체 한 청년이 성경필사 가이드에 따라 성경필사를 하고 있다.

온누리공동체 성경필사 ‘에스라 프로젝트’

8월 30일까지 공동체별로 ‘성경 한 권’ 필사
10월 4일 온누리교회 창립기념주일 전시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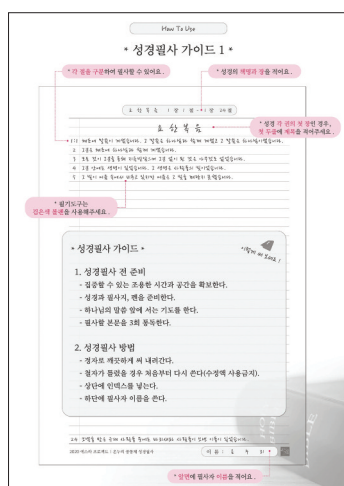
국내의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2020 에스라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20 에스라 프로젝트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고, 개인의 영성관리와 공동체 연합을 위해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참여하는 성경필사 프로젝트다. 완성된 성경필사는 10월 4일 온누리교회 창립기념주일에 전시할 예정이다.

지난 7월 5일부터 시작된 에스라 프로젝트는 8월 30일까지 이어진다. 공동체별로 정해진 분량을 필사 하면 된다. 공동체에 소속 되지 않은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에스라 프로젝트에서는 국내외 온누리교회 공동체별로 성경 1권(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1189장)을 필사한다. 교역자(전임, 파트)와 장로들은 각각 성경 1권씩을 필사한다.

에스라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실시된다. 첫째, 공동체별로 필사자를 자원 받아 확정된 다음 필사범위(분량)를 배분한다. 둘째, 각 캠퍼스 지정 장소에서 필사지와 에스라 프로젝트 가이드를 수령한 다음 필사자들에게 나눠준다. 셋째, 8월 30일(주일)까지 필사지를 각 공동체 총무에게 제출한다.

에스라 프로젝트 성경필사 가이드라인도 있다. 첫째,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



하고, 우리말 성경과 필사지, 펜을 준비한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기도를 하고 필사할 본문을 3회 통독한다. 셋째, 정자로 깨끗하게 말씀을 써내려 간다. 철자가 틀렸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쓴다. 필사지 상단에 인덱스(본문 장, 절), 하단에 필사자 이름을 기입한다.

문의: 서빙고 02-3215-3744, 3263

양재 02-570-7356, 7918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온라인 부모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콘서트’

7월 18~27일 참가자 모집
8월 3일, 10일 화상기도모임

60세 이상 만지 않는 부모들을 위한 부모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콘서트’가 올해는 온라인으로 실시된다. 온라인 부모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콘서트’ 참가자를 7월 18일(토)부터 27일(월)까지 모집한다. 주일 맞춤전도집회 안내데스크, 평일 목회행정실이나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부모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콘서트’는 8월 24일 오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막 오른다. 가수 이무송, 노사연, 신인선, 색소폰 이광재 등이 게스트로 출연하고, 이재훈 담임목사가 설교할 예정이다.

7월 18일(토)부터 27일(월)까지 온라인 부모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콘서트 참가신청을 하면 전도사역

본부에서 5일 이내로 접수확인 문자메시지를 보내준다. 문자메시지를 받은 다음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행복드림2020’을 검색하고 친구추가를 꼭 해야 한다.

집회 안내, 공지 알림, 접속 URL 등을 카카오톡으로만 공지해주기 때문이다. 참가신청이 완료되면 8월 3일과 10일에 요청자 기도모임이 화상(Zoom)으로 실시된다. 맞춤전도집회 신청자들은 화상기도모임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8월 24일(월) 오후 8시 유튜브 라이브 ‘행복드림콘서트’가 진행되고, 9월 27일(주일)에는 결신한 부모들을 위한 세례식이 거행된다.

문의: 02-3215-3214

/ 정현주 기자

공동체 여름방학특강 온라인 강의

9월 1일까지 총 80개 특강 개설

공동체 여름방학특강이 한창이다. 국내 온누리교회 11개 캠퍼스에서 7월 7일(화)부터 9월 1일(화)까지 총 80개(서빙고 28개, 양재 29개, 부천 5개, 수원 4개, 대전 4개, 남양주 2개, 평택 1개, 인천 3개, 강동 3개, 양지 1개) 특강이 개설된다.

이번 공동체 여름방학특강은 모든 강의를 온라인(유튜브 일부 공개, 실시간 강의)으로 진행된다.

소속 공동체 담당목사 강의는 별

도의 신청 없이 순장에게 영상링크(URL)를 받아서 접속하면 된다. 소속 공동체 특강을 제외한 다른 캠퍼스 공동체 강의는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신청하면 해당 강의 영상링크를 보내준다 <과목 안내 14면>.

문의: 공동체 양육총무, 담당목사
캠퍼스 양육 담당간사

/ 정현주 기자

7월 비전헌금 농어촌선교팀 지원

7월 11일과 12일 봉헌하는 7월 비전헌금은 농어촌선교팀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농어촌선교팀은 미자립 농어촌교회의 자립을 돕고 있는 사역팀이다. 전국 농어촌 지역 200여 개 교회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매 월 정기적인 재정지원 및 목회자 자녀 학자금 지원, 교회 개보수 및 온누리교회의 다양한 사역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농어촌교회의 자립을 돕고 있다.

류현모 교수의 '세계관 묵상'

성, 생명, 가정 기독교가 지켜야 할 핵심가치



류현모 교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60년대 중후반부터 서구사회는 전통적인 기독교의 가치, 윤리, 기준을 버리기 시작했다. 이런 흐름은 대학, 미디어, 연예사업의 엘리트들 중에서 문화적 급진주의자들에 의해 추진되었다. 문화적 상대주의, 세속주의, 성적인 자유를 밀어붙이는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이었다. 신마르크스주의 운동의 근원은 1930년대 이탈리아의 그람시와 헝가리의 루카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제1차 세계대전 동안 마르크스 이론이 세상을 지배하지 못하자 큰 실망에 빠졌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했다. "유럽 각국의 프롤레타리아들과 마르크스주의자들이 1차 세계대전 동안 자기 나라에서 공산혁명을 일으키기보다는 조국을 위해 싸웠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람시와 루카치는 세상의 프롤레타리아들이 성, 결혼, 가정의 가치를 지키는 기독교 문화에 빠져 있을 때에는 결코 혁명을 위한 봉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것이 부르주아들의 문화주도권이라 생각했다. 따

라서 마르크스주의의 대의를 위해서는 기독교 문화를 파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들이 선택한 표적이 성(性)이었다.

성은 옛날부터 인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며 죄악에 빠지기 쉬운 부분이다. 기독교의 성은 결혼제도를 통해 맺어진 남편과 아내 사이에만 있어야 하는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관계로 설정한다. 이런 기독교의 성윤리는 성관계에 호기심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 부분을 공략하기 시작한 것이다. 기독교 성문화에 대한 도전은 신마르크스주의를 받아들이는 프랑스의 포스트모던주의자들이 주도한 68혁명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선전문에서 보이듯 '금지함을 금지하라', '구속 없는 삶을 즐겨라', '혁명을 생각할 때 섹스가 떠오른다' 등 기존 정치와 도덕 관습에 대한 전면적인 반란이었다. 이 운동은 너무나 극단으로 흘러 즉시 진압되었고 실패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베트남전쟁 반전운동, 히피문화가 혼합된 '우드스톡 페스티벌'에 모인 젊은이들을 통해 성윤리 파괴가 급격히 전파되었다. 그 결과는 낙태, 이혼율, 편부모 가정, 미혼모와 혼외자의 증가로 나타났다. 결국 성적인 타락은 생명의 파괴인 낙태, 가정의 파괴인 이혼, 그 파괴된 가정의 자녀들

은 성적방황과 정체성 상실로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 가정은 교회와 국가를 형성하는 사회의 기본 단위다. 그러므로 성적인 타락은 반드시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파괴로 연결된다. 세계 공산화를 노리는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은 기독교를 근간으로 하는 부르주아의 문화주도권을 파괴해야 공산당이 지도하는 공산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아직도 믿고 있다. 우리나라 현 정권이 추진하는 입법의 내용들을 보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판결에 따르는 관련법 제정', 동거하는 커플에게도 부부로서의 권리를 인정하라는 '생활동반자법 입안 시도', '동성혼 합법화 입안 시도' 등 그람시가 말한 문화주도권 장악을 위해 전력질주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입안이 시도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기존의 규범을 지키려는 주류문화의 모든 발언에 재갈을 물리고, 모든 행위에 족쇄를 채우기 위한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동성애 뿐 아니라 다른 도덕적 행위를 추구하는 소수자의 잘못을 지적할 수 없다. 학교에서는 이런 성적취향에 대해 정상적인 것으로 교육해야 한다. 이들이 차별 당했다고 느끼고 고소하면 고소당한 사람은 자신이 차별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활동하다가 고국으로 돌아가 런던 빈민가에서 의

사로 봉사하는 작가 데오도르 달림폴은 주장한다.

"혼인과 사회적 의무에서 해방된 성관계가 어떤 것인지 보고 싶다면 사회 최하층민의 삶의 혼돈을 보라. 거기에는 복부타격으로 이루어지는 낙태가 있다. 피임이나 성교육을 받기도 전에 아기들을 벌써 낳아버린 아이가 있다. 해산을 전후해 아기의 아버지로부터 버려지는 여자들이 있다. 이혼과 재혼에 의해 생긴 양부모의 지위가 아이들에 대한 대규모의 성적, 육체적 학대로 이어진다. 성에 있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구분이 흐려진다. 이런 현상은 지도층으로부터 흘러내려온 이념들에서 기원하기에 분명히 그들에게 책임이 있다. 이들 포스트모던 지도층들이 행하는 것은 그들의 이념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념의 순수함이 그것이 초래할 결과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정말 이기적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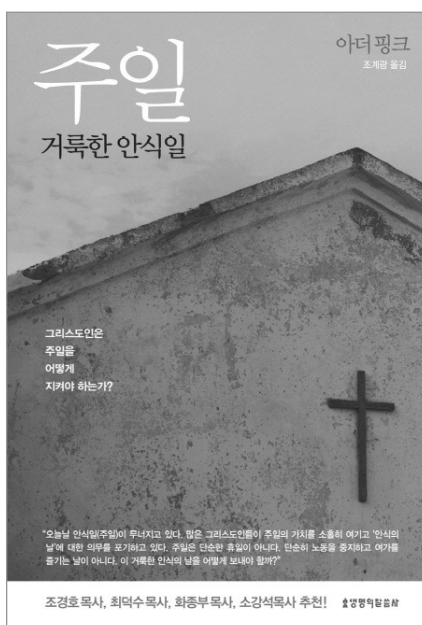
자신들이 만들어낸 이념의 결과를 생각하지도 않고 책임지지도 않는 집단의 결단만 지르려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우리의 명확한 의견을 드러낼 때이다.

묵상: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표방하는 이념의 결모습과 그로 인한 파괴적인 결과를 생각해 보자.



책 읽어주는 목사

매일을 주일로 살아내다



주일, 거룩한 안식일
아더 핑크 저 | 생명의 말씀사 | 16,000원

간절히 드린 기도 응답 받고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아름답다면, 그 감사와 기쁨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여

기 바로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있다. 20세기 초 활동한 성경교사이자 설교자로서 지금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아더 핑크'가 그 주인공이다. 이렇게만 보면 그의 인생이 참 행복했을 거 같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다.

아더 핑크가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기는 1929년 미국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로 퍼져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고통과 괴로움을 준 '대공황' 시기였기 때문이다. 대공황 당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더 핑크도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몹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아침을 맞이하면 오후에 뭘 먹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는 현실이었다. 집세를 감당할 수 없어서 이사도 빈번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음을 지키며 이전과 같이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인생 최고의 위기를 겪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더 핑크뿐만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각자의 인생에서 위기를 마주할 때가 있다. 그 때마다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을 뒤덮는 역을 함, 두려움, 가난, 외로움, 고통 등 말 못할 아픔

이 찾아온다.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을 남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 어려운 현실의 무게를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으나 그것은 분명 영혼을 짓누르고, 육신과 마음이 무너지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그럼에도 아더 핑크는 한 가지를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 기도는 바로 위기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었다. 그 기도가 이어지던 어느 날 문득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인간의 유익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관심과 실천을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곧 지혜와 유익을 얻는 길이라는 사실이다.

물론 기도하고 깨달은 바가 있다고 해서 현실이 당장 바뀐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아더 핑크는 깨달은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다. 아니 잊을 수가 없었다. 현실의 어둠이 칙철같이 엄습해올수록 그 사실과 그 말씀은 더욱 찬란하게 빛났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

야 한다는 사실이 말이다.

아더 핑크는 그 빛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그와 그의 공동체가 있는 곳을 교회가 되게 했다. 직장이 교회였고, 학교도 교회였으며, 가정도 교회가 되었다. 사회와 세상이 교회 그 자체가 되었다. 그들이 사는 사회와 세상이 교회가 되면서 삶이 자연스럽게 예배가 되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들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을 뛰어 넘어 그들의 영혼의 안위와 생명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맞이한 새날은 어제와 달랐다. 어제와 같이 떠오른 태양이 오늘은 그들에게 새날을 보여주었다. 그들이 맞이한 새날은 더 이상 혼자 아니었다. 오늘은 주님이 함께하시는 주일이 다. 그들은 매일을 주일로 살아냈다.



윤준석 전도사
(열린새신자예배)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요단강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구약의 어떤 시대에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입니다. 전 국가적인 회개가 일어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치는 요한의 음성에 사람들이 큰 찢림을 받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당시 요한의 영향력이 매우 컸습니다. 만일 요한이 순간 유혹을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했다면 모두 그렇게 믿고 따랐을 것입니다. 다행히 요한은 유혹을 극복했고, 수차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분명한 정체성을 밝혔습니다. 또한 자신이 예비하는 예수님을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은 나보다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춘 것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요한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요단강에 나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요한이 놀라고 세례 주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러자 요한은 그대로 따랐습니다”(15절).

예수님의 ‘죄인과 같이’ 되는 사랑

세례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영어로 ‘baptism’인데, 헬리어 바티조(βαπτισμα)에서 나왔습니다. ‘물에 잠기다’는 뜻입니다. 물에 잠기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물속에 잠기는 것처럼 우리가 죽어야 죄가 해결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다시 물에서 나오으로써 죄를 해결하고 살아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가 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죄인이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죄인처럼 취급 받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죄인과 같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같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과 같이 되신 길을 첫 번째로 걸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죄인인 인간에게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모든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첫 번째 단계가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죄인과 같은 자리에서 서시는 것입니다. 죄인과 같이 되셔야 그 죄인을 대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기 목숨을 죽음으로 내던지고 죄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으며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죄지는 사람들이 용서를 받도록 중재를 했기 때문이다”(사 53:12).

‘죄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다’는 뜻은 의인이 죄인으로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중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짐, 겸손, 죄인과 같이 되는 사랑이 바로 성육신적인 사랑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그들과 같이 되는 사랑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죄인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죄를 지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인을 변화시키기 위해 죄인 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과 같은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같이 되실 뿐만 아니라 죄인과 같이 되심으로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일의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이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물 세례를 통하여 자신의 죄인 됨을 고백하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중요한 예식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기에 우리 모두 세례에 임해야 합니다. 세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의식

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 증인들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물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함께 참여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 오셨을 때 매우 중요한 일이 또 하나 일어났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난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공적으로 발표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죄인과 같이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님은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임하셨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소리를 통해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 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자”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죄인과 같이 되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 같이 임하심으로 온유와 겸손과 능력과 인내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며 예수님의 발걸음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축복하셨습니다. 유일한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고, 죄인과 같이 취급 받은 것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 것은 율법을 주실 때 이후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주실 때처럼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바로 이 말씀, 이 음성입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가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유일한 아들이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이 성육신 하였고, 죄인과 같이 되셨고,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첫 단계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들린 이 소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게 하시려고 걸으시는 첫 번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음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아니셨습니다. 마땅히 죄로 죽어야 할 인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요, 성육신하신 분이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매우 기뻐하시는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아들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을 의지하여 용서 받을 수 있고, 그분의 죽으심을 의지하여 죄 사함을 받고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과 함께 살아가는 은총**

“내가 붙잡아 세운 내 종을 보라. 내가 뽑았고 내가 기뻐하는 내 종을 보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불어 넣었으니 그가 민족들에게 공의를 가져다 줄 것이다”(사 42:1).

그 아들이 종이 되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심이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종으로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발걸음을 기뻐하고 사랑하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오고, 성령님은 비둘기 같이 예수님께 임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인과 같이 되심으로 물의 세례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셔서 성령의 세례도 받으신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물세례나 성령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에 합당한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죄인과 같이 되셨고,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가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필요한 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성령의 세례와 능력을 힘입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되시기 전에 죽음의 세례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는데 이미 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는지 모른다”(눅 12:49-50).

예수님이 받으신 물세례는 장차 받으실 십자가의 중요한 표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례, 십자가의 세례를 받으셨기에 우리가 받는 물세례는 역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은혜를 덧입는 세례가 된 것입니다.

(14면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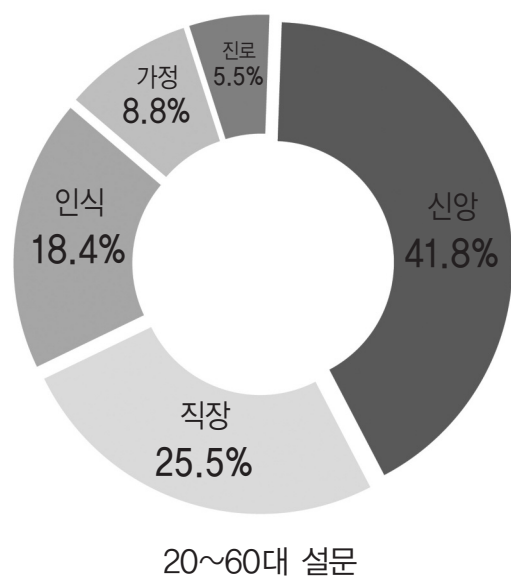
5월 순예배 간담회 설문조사 결과

성도 84%, 코로나19 이후

긍정적 변화 가족 연합, 보건 및 위생, 신앙 돌아보는 계기 부정적 변화 고립,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지난 5월 11일 주간과 18일 주간 실시한 순예배 간담회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 이후 세상과 교회의 변화에 대해 조사한 순예배 간담회 설문조사에는 온누리교회 성도 2만4천7명(1차, 2차 합계)이 응답했다. 그 중에서 결측치를 제외한 설문지 1만4천4백4십장을 최종 분석했다. 분석결과, 온누리교회 성도 84%가 코로나19 이후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다. 긍정적 변화는 가족 간의 연합, 보건 및 위생,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였고, 부정적인 변화는 고립,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삶의 가장 큰 변화



코로나19 이후 세상에서의 개인의 가장 큰 변화는 신앙(41.8%)과 직장(25.5%)과 관련되어 있었다. 개인의 인식(18.4%)에도 변화가 있었다. 이외에도 가정(8.8%)과 진로(5.5%)영역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다.

20대부터 60대까지 모든 연령대 응답자들이 신앙생활과 관련된 변화를 개인에게 나타난 가장 뚜렷한 변화라고 응답했다. 그 내용은 '교회에 갈 수 없다', '예배당 예배의 중요성', '예배 자체의 중요성' 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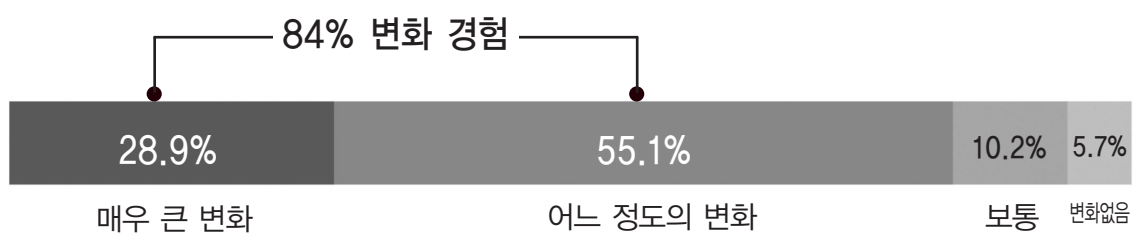
직장과 일터에서 나타난 변화는 '경제활동이 어려워짐', '대면접촉 기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이었다.

개인의 인식변화는 '인간의 한계 자각',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 '일상의 소중함' 등이었다.

가정에서는 '개인 및 가족주의 심화', '외부 활동 축소', '사람에 대한 의심' 등이 변화를 만드는 주요 요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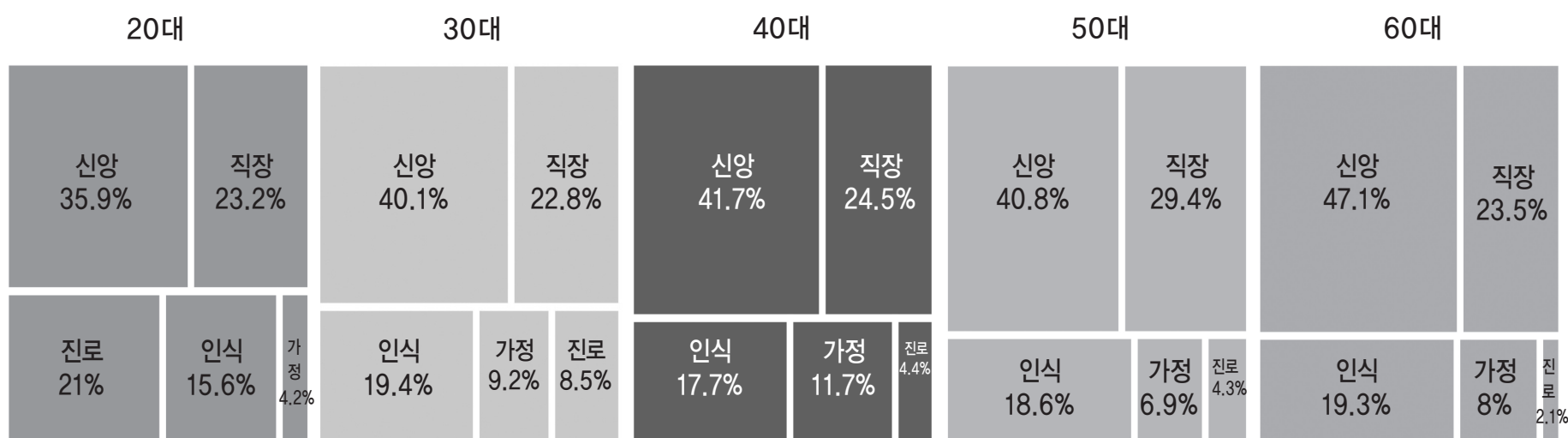
학업 및 진로의 변화는 취업과 일자리 문제였다. 20대뿐만 아니라 50~60대 응답자들의 고민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이후 삶의 변화 정도



- 긍정적 변화: 가족과의 연합, 보건 및 위생,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
- 부정적 변화: 고립, 미래에 대한 두려움

코로나19 이후 연령별 삶의 변화



삶의 변화 경험했다!

개인 차원에서의 이슈

① 신앙

20대: “예배의 소중함이 크게 와닿는 계기”
40대: “가정내 신앙 교육의 어려움”
50대: “내가 성전인 것을 확인”
60대: “건물로서의 교회로 남을까봐 두렵다”

② 인식

20대: “예수님만 의지해야 깨어있을 수 있다”
30대: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답이 있다”
50대: “과학의 발전도, 선진국으로서의 비약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
60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인생임을 각성”

③ 직장

20대: “미래를 내 의지로 어찌할 수 없다는 무력감”
30대: “수입의 감소로 일상이 붕괴되고 절망감이 크며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준비”

④ 가정

20대: “개인주의가 강해지는 만큼 가정 내 예배와 기도가 필요”
40대: “우리 삶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⑤ 진로

20대: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현실에 허탈감”
50대: “자녀 세대와 실직에 대한 걱정”
60대: “성인 자녀가 집에만 있는 것이 안타깝다”

교회 차원에서의 이슈

① 예배당 예배와 온라인예배

20대: “교회를 한 번 안 나가보니 마음이 자연스레 멀어져”
40대: “온라인 예배의 아쉬움으로 인한 예배당 예배 갈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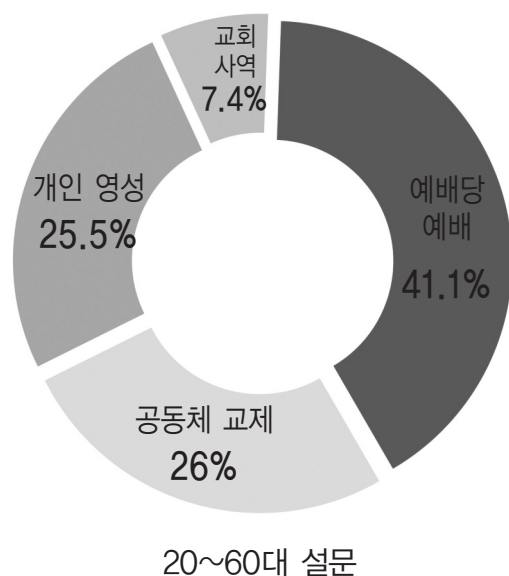
② 공동체 모임 및 교제 활성화

30대: “온라인 예배 가운데서도 공동체 교제는 유지되어야”
40대: “개인적인 신앙이 주가 되어 공동체 붕괴에 대한 경계”
60대: “비대면 온라인 예배 이해하나 소규모 모임은 지속되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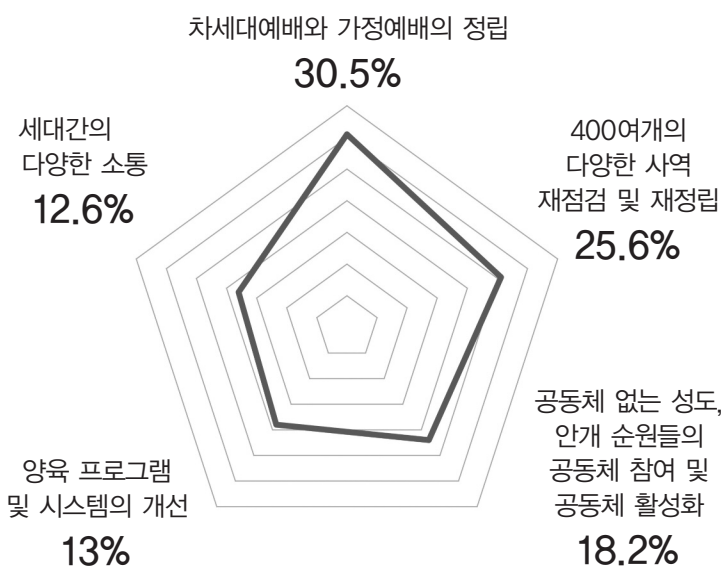
③ 개인 영성과 사역

20대: “성경공부, 중보기도 모임과 같은 신앙 생활 관리 필요”
30대: “전도 및 선교에 대한 어려움 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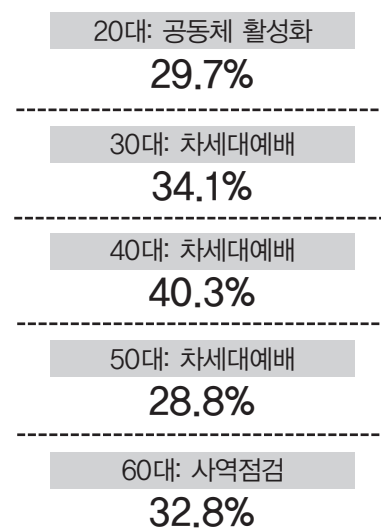
코로나19 이후 교회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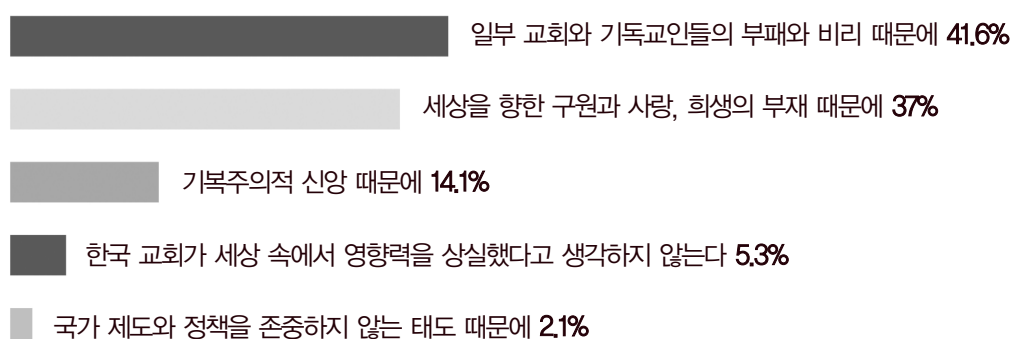
코로나19 이후 온누리교회 최우선 과제



연령별 최우선 과제



한국 교회의 영향력 상실에 대한 본질적 이유



코로나19 이후 교회의 변화는 예배당 예배(41.4%), 공동체 교제(26%), 개인영성(25.5%), 교회사역(7.4%) 등이었다. 예배당 예배와 온라인 예배, 공동체 모임 및 교제 활성화, 개인영성과 사역에서의 변화가 코로나19 이후 교회 차원에서의 주요 이슈였다.

응답자들은 온누리교회의 최우선과제로 차세대 예배와 가정예배의 정립(30.5%), 400여 개의 다양한 사역 재점검 및 재정립(25.6%), 무(無)공동체 성도, 안개 순원들의 공동체 참여 및 공동체 활성화(18.2%), 양육 프로그램

및 시스템의 개선(13%), 세대 간의 다양한 소통(12.6%) 등을 꼽았다.

한국 교회의 영향력 상실에 대한 본질적 이유는 일부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부패와 비리(41.6%), 세상을 향한 구원과 사랑, 희생의 부재(37%), 기복주의적 신앙(14.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교회가 영향력을 되찾기 위해서 교회 차원에서 변화되어야 할 부분으로는 예배와 사역 회복, 윤리 회복 및 부정부패 안하기, 사랑, 선한 영향력 실천 등으로 조사됐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미래를 헤쳐나아가야 한다!

온누리 미래준비 세미나 ‘뉴노멀, THE NEXT?’

총 3,332명 참여 ... 오프라인 170명, 온라인(Zoom) 262명, 유튜브 2,900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는 새로운 미래를 어떻게 대비하고 만들어갈지를 고민하고 토론하는 온누리 미래준비 세미나 ‘뉴노멀, THE NEXT?’가 지난 7월 6일(월)과 9일(목) 오프라인(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 및 온라인(Zoom)으로 진행됐다. 오프라인 170명(1차 90명, 2차 80명), 온라인(Zoom) 262명(1차 150명, 2차 112명), 유튜브 시청 약 2,900명(1차 1,600명, 2차 1,300명)이 참가했다.

지난 6일(월) 열린 1차 온누리 미래준비 세미나 ‘뉴노멀’에서는 윤현덕 장로(서빙고공동체)가 사회를 보고, 운영각 장로(미래위원회 위원장), 추혜림 집사(강남D공동체, 학원 운영), 최선 집사(부천공동체, 특수학교 교사), 김창석 집사(강동 온누리교회, ㈜엘스톤 대표), 주영재 집사(분당B공동체, 물류회사 대표)가 패널로 출연해서 자신들이 겪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신앙생활과 교회의 변화, 새로운 미래 준비 등을 주제로 토론했다.

추혜림 집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들에게 드라이브인 예배처럼 좋은 모델을 제안하는 온누리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망했고, 최선 집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온누리교회가 장애인과 차세대 사역에 대한 뉴노멀을 만드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제안했다. 김창석 집사는 “목회자와 교회 리더십들이 일반 성도들을 찾아가고 교제하는 온라인 환경이 더욱 활성화되면 좋겠다”고 했고, 주



지난 9일(목) 열린 2차 온누리 미래준비 세미나 ‘THE NEXT?’.

영재 집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제약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과 채널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9일(목) 열린 2차 온누리 미래준비 세미나 ‘THE NEXT?’에서는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이 출연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진단과 제언을 했다. 황진숙 교수(강남공동체, 건국대 예술디자인)가 사회를 보고, 김의석 집사(강남A공동체,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김준 장로(관악금천공동체, 서울대 조정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이현모 교수(침례신학대학교 선교학), 김윤 박사(영어예배, SK텔레콤 CTO)가 패널로 출연했다.

김의석 집사는 “철저한 예방지침을 따르는 불편함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는 것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고, 김준 장로는 “성경적 원칙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교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적극적으로 선도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모 교수는 “디지털 시대가 선교적 차원에서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모든 교회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함으로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 박사는 “디지털 기술 도구들을 지혜롭게 개발 적용함으로써 교회가 영적 전쟁터인 디지털 세상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전해야 한다”고 제

안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가 두렵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중심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미래를 헤쳐나아가야 한다”면서 “온누리교회가 한국 교회를 위한 변화의 장치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권면했다.

‘뉴노멀, THE NEXT?’에 참여한 성도들도 다양한 의견과 소감을 내놓았다. 김종호 장로(경기A공동체)는 “교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할지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했고, 김정은 자매(CHPLUS공동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교회가 거시적, 미시적 관점에서 토론하고 공유하는 자리에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Zoom)으로 참여한 성도들도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아이디 김경훈은 “목양에 더 많은 투자를 해주면 좋겠다”고 했고, 아이디 김영옥은 “뉴노멀 시대에 온라인을 최대한 활용해서 성도 간 교제나 양육의 장을 창의적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아이디 박귀홍은 “온누리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대책이 더 많이 의논되고, 앞으로의 목회에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 이재훈 담임목사 메시지

가장 안전하면서, 가장 역동적인 교회

아무리 언택트, 온라인 영상 시대가 와도 교회 본질은 대면이고, 공동체이고, 함께 모이는 것이고, 만나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만나면 됩니다. 안전하게 예배드리고, 안전하게 소그룹을 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안전수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거리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제한된 공간에서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 4월 ‘주의 날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역사적, 신학적, 성경적 설교를 드렸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평일까지 주의 날을 확장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됩니다. 안전수칙을 더욱 보강하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장 역동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가야 합니다.

온누리교회는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35년

동안 공동체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선교가 있었습니다. 해외를 가는 것 자체가 막혀서 개인과 선교사님들의 활동마저 어려워진 시대에 선교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선교지를 보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250만 명이나 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한민국에 와 있습니다. 이주민들이 곧 우리의 선교지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주민 선교에 전력해야 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변화해야 할 사역들을 찾아간다면 우리는 분명 이 시대의 선교적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차세대 자녀들을 어떻게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VR(가상현실)’을 떠올렸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VR 관련업체를 찾아다니면서 아직은 기술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VR기기의 발전된 기술을 통해서 마치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처럼 가상공간에서 예배드리고, 순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채택하고 선교적 도구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저에게는 성경의 여러 스토리들을 VR기기로 5분 이내로 학습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꿈도 생겼습니다. 물론 그 기술들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교회는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CGNTV와 함께 디지털 미디어 라이브러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적합한 영상 콘텐츠를 어떻게 제공하고,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꿈을 가졌었는데, AI가 등장함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AI기술을 접목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진단해주고, 가장 적합한 영상들을 제공해주고, 교회는 그것을 커리큘럼으로 만들어서 학점화하고, 리더십을 세우거나 평가하는데 반영할 수 있는 양육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양육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교회의 벽을 넘어서 함께 공유하는 시대로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온누리교회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때 성도님들이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를 위해서 온누리교회가 앞장서서 새롭게 시도해 보고, 안 되면 또 새롭게 시도해서 한국 교회가 안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변화의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진단과 제언

● 의료분야



김익석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코로나19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생기고 있고, 해외에서 감염자 유입이 계속 되고 있어 방심하면 언제든지 대규모 유행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 종식까지는 수년 이상 걸릴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증상이 아예 없거나 아주 가벼운 상태에서도 타인에게 전파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소그룹 모임을 가질 때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아프면 대면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플 때는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모임은 환기가 잘되는 넓은 공간에서 최소 1~2m 거리를 두고 진행하고, 모

임 전후로 손 씻기를 해야 합니다. 모임 내내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린 채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합니다. 불편하고, 소그룹의 친밀한 분위기를 해치지 않음과 걱정하실 수도 있지만, 불편함을 무릅쓰는 노력이 결국 우리의 소중한 공동체와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변화의 중심에 서있는 아이들에게도 적절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는 아이들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밀접접촉이 흔하고,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바이러스 전파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아이들에게 설명할 때는 세상에 없던 새로운 바이러스 질환이 생겼는데 아직까지 치료제와 예방

약이 없기 때문에 손을 깨끗이 자주 씻고, 마스크를 잘 쓰고, 눈과 코, 입을 함부로 만지지 말고, 친구들을 만날 때도 거리를 뒀어 한다고 설명하면 좋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힘들 수도 있지만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방법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방법임을 알려줘야 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서 교회는 지금까지 해오던 금홀사역을 중단해서는 안 되고, 새로운 방향과 방법으로 사역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취약하고 소외될 가능성이 큰 독거노인, 이주 노동자, 다문화가정, 차상위계층 아이들을 위해 온라인 상담과 교육지원 등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 생태시스템분야



김준 교수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코로나19는 예견되었던 재앙이자 인위적인 재앙입니다. 인류가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지구의 생태적 한계를 넘어 자연법칙을 거스르는 삶의 방식을 추구했고, 그로 인해 사회적 기반이 붕괴되면서 발생한 것이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부터 반드시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코로나19는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대재앙 드라마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금도 퍼지고 있고, 계속 퍼질 것입니다. 술선수범하는 정부와 이를 실행하는 능력, 국민의 참여가 조화를 이룰 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

다. 삶의 방식을 바꾸는 비전과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세계를 돌보는 것은 크리스천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지금 붕괴되고 있는 사회 시스템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적인 해결 방안이 없지는 않지만,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속가능성 과학 및 시스템 과학에서는 혁신적인 변화를 위한 중요한 도구로 다섯 가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비전의 엔지니어링, 네트워킹, 진실 말하기, 학습과 배움, 사랑하기가 그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핵심 도구가 성경적 원리와 전혀 어긋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적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창조세계를 돌보고, 지속 가능

미래를 위한 바른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미래를 적극적으로 선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구제, 선교비전 성취를 위해서 과학공동체와 유엔(UN)과 국제사회가 정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빈곤퇴치부터 지구촌 협력 확대까지 교회와 전혀 무관하지 않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지구를 살리려는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관심을 두고, 교회 차원에서 성도들과 함께 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목표들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 선교분야



이현모 교수
(침례신학대학교 선교학,
WMTC 선교훈련원장)

코로나19를 사역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닥친 위기는 질병뿐만이 아닌 듯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 안정적 구조의 붕괴로 인한 불안감, 사회관계와 공동체의 약화 또는 붕괴 위기, 소외된 약자들의 고통, 경계심, 불신, 개인주의 등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질병은 의료진의 손을 의지해야 하지만, 나머지 영역 대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해야만 합니다.

기독교와 교회는 근본적인 변화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새로운 세대에 나타나는 변화들은 엄청난 가속도를 얻게 될 것이고, 소통의 불편함, 불완전함, 공동체 의식의 약화, 개인주의의 극대화 등과 같은 문제들이 빈번하게

등장할 것입니다. 이러한 세대 속에서 교회가 가진 두 기둥을 살펴봐야 합니다. 교회는 불변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과 말씀을 성취해나가는 두 기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와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이 전통의 틀 안에서 이루어 집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통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지만, 아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전의 전통을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붙잡고 있으면 변화에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새로운 건강한 전통을 만들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뜻밖에도 우리의 고착화된 부분들을 가차 없이 붕괴시키는 힘을 발휘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기회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도전하는 일이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행할 수 있는 사랑은 없습니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그래도 생활이 안정적인 성도들은 더 적극적으로 헌금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늘어난 헌금으로 사회의 약자들, 경제적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재분배 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주목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탈북민,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에게 조용히 나누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성취하는 최선의 길은 모든 교회, 모든 성도가 모든 기회를 통해 선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 인공지능/정보통신분야



김윤 박사
(SK텔레콤 CTO)

일상생활에서의 디지털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 항목이 되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고, 물리적 세상과 디지털 세상에서의 경험이 혼재하는 소통양식이 '뉴노멀'이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기술혁신이 사회 변화를 촉진하는 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감염병으로 인해 세상의 변화가 강제되었고,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인류와 사회의 존속과 번영을 위해 기술혁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 네이버, SK텔레콤 등 ICT 기업들이 내비게이션 어플이나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감염자 경로나 지역인구 이동 및 혼잡도 예측에 커다란 역할

을 했습니다. 이제는 사람중심의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할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밖에 없던 3D 업무를 기계가 대신 하거나 혹은 사람과 함께 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디지털 시대에 맞춰 많은 변화들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별다른 준비 없이 오프라인 활동들을 온라인으로 옮겨 놔기 때문에 부족한 면들이 많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매끄럽게 이어주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우선순위를 뒤야 할 것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특징과 장점을 잘 살려 최적의 조합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디지털 시대 교회가 가져야 할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뉴노멀 선교'입니다. 오디오 성경을 1,000개 이상의 언어로 배포하는 사역자가 AI를 이용해서 사역을 확장할 꿈을 꾸는 것처럼 다양한 전략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둘째, '디지털 세상에서의 힐링'입니다. 디지털 세상은 이미 영적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싸워 이기기 위한 기술적 도구들을 지혜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시공간을 초월한 공동체'입니다. AI를 활용해서 성도들의 배경, 성향, 관심, 고민, 영적 상황이나 갈망 등을 파악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되면, 교회의 사역에 사용할 수 있다면 교회는 분명 새로운 장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이렇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J4U공동체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섬기러 갔다가 더 많은 위로와 은혜 경험

지난 5월 어려운 시장경제와 소상공인,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돕기 위한 공감소비운동이 온누리교회 전체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됐다. J4U공동체도 귀한 사역에 동참하고자 도움이 필요한 사역지를 모색했다. 고민 끝에 왕십리에 있는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를 섬기기로 했다.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는 올해 초 공동체에서 ODO(One Day Outreach)로 섬기기 위해 연락하던 곳이었다. ODO를 진행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에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면서 모든 일정이 취소되었다. 그 아쉬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고,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선물을 마련하고자 공감소비운동 장소로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를 선택했다. ODO로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 뵙고 도움을 드리면 좋겠지만, 공감소비운동으로도 섬길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었다.

어르신들에게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던 중에 선물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하고, 좋아하실만한 선물을 준비하고 싶어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의 선물로 손수건을 추천해주셨다.

사실 손수건은 인터넷에서 손쉽게 대량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그런데 공감소비운동 취지



J4U공동체 청년들이 공감소비운동으로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어르신들에게 손수건을 선물했다.

에 맞게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통해 물품을 구매했다. 이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좋으면서도 예쁜 손수건을 선물로 드리고 싶었다. 그런데 매 장마다 가격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고, 괜찮다 싶으면 수량이 없는 경우가 있어 많은 시장을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다.

물품 구매를 위해 여러 시장을 돌아다니며



어려운 과정을 거쳤지만,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관심 덕분에 좋은 사장님을 만나게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장사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공감소비운동의 취지와 어르신들에게 선물하러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좋은 제품을 기존 가격보다 저렴하게 주시기로 하셨다. 사장님의 따뜻한 마음까지 더해진 예쁘고 좋은 손수건을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어

르신들께 전달할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상황은 얼어붙었지만, 전통시장에서 어려운 상황일수록 서로가 서로를 도우려는 따뜻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 섬기러 갔다가 오히려 더 많은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사랑은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눌수록 배가 된다는 말씀을 실감하는 시간이었다.

공감소비운동을 통해 어르신들을 섬길 수 있었지만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해주신 길에 발만 올렸을 뿐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마지막으로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를 위해 기도제목을 나누고 싶다. 센터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더욱 취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외출이 제한되고, 그 안에서만 생활하셔야 하기에 외로움과 고독감을 많이 느끼고 계신다고 한다. 코로나19 사태의 안정과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시기를 요청한다.

또한 J4U공동체에서 전달한 손수건은 정말 작은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위로가 어르신들께 전달되기를 기도한다.

/ 강호길 형제(J4U공동체)

요셉공동체 등대교회

씩을 티우시는 하나님, 오병이어의 하나님

요셉공동체는 매월 첫 번째 주일에 등대교회를 방문해서 'ODO(One Day Outreach)' 사역을 하고 있다. 등대교회는 쪽방촌 주민들과 노숙인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매월 등대교회를 찾아가 성도님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정말 즐겁고 행복했다. 그러다 갑작스럽게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고 곧이어 ODO사역이 중단됐다.

등대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크고 작은 기저질환을 앓고 계시기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매우 취약하다. 그래서 ODO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없었다. 우리가 사역하러 가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등대교회의 예배는 계속 이어졌다. 한 번의 쉼 없이, 때로는 소수의 성도님들이 모여 예배를 이어가고 있다. 사실 등대교회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늘 어려운 곳이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야 갑작스럽게 찾아온 삶의 변화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호소하고 있고, 죽음의 위협을 실제적으로 느끼지만 등대교회 성도님들께는 새로운 일이 아니다. 늘 있던 일이다.

등대교회를 찾아가는 수는 없지만 마음 한편에 성도님들의 얼굴이 있었다. 보고 싶고, 그림고, 소식이 궁금했다. 그러다 온누리교회 공감



등대교회 성도들이 요셉공동체 지체들이 선물한 옷을 입고 기뻐하고 있다.

소비운동이 시작됐다. 당장 등대교회 김양옥 담임목사님께 전화를 걸었다. 목사님과 통화하며 등대교회의 필요 물품을 전달 받았다. 그리고 얼마 후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됐다. 사용처가 한정적이어서 물품 구매처를 고르는 일에도 신중했다. 기도하며 등대교회 근처에 있

는 광장시장을 선택했다. 그곳에 있는 여러 상점 중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이동했다. 온라인쇼핑이 익숙했던 나는 시장을 두리번거리며 물어 물어 2평 남짓 남성캐주얼 매장에 도착했다. 매장을 구경하다 사장님과 서로 크리

스천임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며 기뻐했다. 우리가 만난 사장님은 주변 가게 중에서 본인만 크리스천이라고 고백하셨다. 그곳에서 우리는 등대교회 쉼터 노숙인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바지, 바람막이, 셔츠 등의 옷을 구입했다. 등대교회로 이동해서 물품을 전달했는데 성도님들을 뵈는 수는 없었다. 나중에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을 봤더니 우리가 선물한 새 옷을 입고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보였다. 성도님들의 미소를 보면서 마음이 뭉클했다.

공감소비운동에 참여하면서 내 노력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되니 '내가 뭐라고 사용하여 주시나'라는 마음이 들면서 감사하게 됐다. 척박해진 코로나19 이후의 삶 속에서도 쉼을 티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다. 오병이어의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어서 참으로 감사했다.

등대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과 위로를 얻기를 기도한다.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을 절대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등대교회 목사님과 전도사님,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한다.

/ 배진영 자매(요셉공동체)



코로나19, 이렇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남대문희망공동체 도시락 나눔사역

“7월에도 도시락 나눔사역 계속 됩니다!”

지난 6월 21일 서울역광장 한복판. 초여름 피약별이 작렬하는 아스팔트 위로 긴 줄이 만들어졌다. 서울역 노숙자들이 남대문희망공동체에서 나눠주는 도시락을 받고 있는 풍경이다. 남대문희망공동체는 서울역 주변 쪽방촌(동자동 일대) 주민들에게 심방과 전도, 일대 일제자양육 등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예배공동체다. 여호수아청년부와 성인공동체 성도 각각 20여 명이 쪽방촌 주민 61명을 섬기고 있다.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처소(용산구 한강대로 363-2 ISB 서울빌딩 2층)에서 새벽기도회(오전 5시 20분)와 주일예배(오후 12시 10분), 양육(일대일, 큐티, 금요기도학교 등), 목요카페(심방, 반찬 나눔) 등의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그 이름 그대로 서울역 쪽방촌 주민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희망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남대문희망공동체에 예기치 못한 시련이 닥쳤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때문이었다. 예배처소의 문을 닫아야 했다. 독고영 집사(동작공동체, 남대문희망공동체 팀장)는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처소를 닫은 그날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예배드리러 온 분들에게 ‘전염병 감염예방을 위해 예배처소 출입이 금지되었으니 돌아가세요’라고 말하게 될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정말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김희숙 권사(서초B공동체)의 마음도 마찬가지였다. 그즈음 김희숙 권사가 서울역 지하도



남대문희망공동체에서 서울역 노숙자들에게 도시락을 나눠주고 있다.

에서 계신 예수님의 환상을 봤다.

“오병이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서울역 지하도에 서 계시는 환상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주님, 여기 왜 계시세요?’라고 물었더니 ‘먹을 것이 없다. 네가 줘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영문도 모른 채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김희숙 권사가 본 환상을 남대문희망공동체 봉사자들에게 나눴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서울역 노숙자들을 위한 도시락 나눔사역이 시작됐다. 처음에는 김희숙 권사, 독고영 집사, 김미자 권사(마포공동체)의 자비량으로 시작했는데, 남대문희망공동체 봉사자들이 가세했다. 온누리교회에서 실시한 공감소비운동도

한몫했다. 30개로 시작한 도시락 나눔사역이 그 다음 주에는 40개, 그 다음 주에는 60개, 90개, 120개, 150개까지 늘었다. 3월 15일부터 시작해서 6월 21일까지 장장 15주 동안 실시했다.

지난 6월 21일은 남대문희망공동체가 서울역 노숙자들에게 도시락을 나눠주는 마지막 날이었다. 독고영 집사의 표정에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진하게 남아 있었다.

“정말 아쉽지만 이번 주가 노숙자들에게 도시락을 나눠주는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독고영 집사 곁에서 노숙자들에게 도시락을 나눠주던 김희숙 권사도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주님이 드리는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는 안 나옵니다...”

이날 준비한 도시락 120개가 10여분 만에 동났다. 정말 순식간이었다. 생수 한 병까지 탈탈 털어 나눠주고 돌아섰다. 독고영 집사와 김희숙 권사가 아쉬운 마음을 애써 누르며 끝까지 소망을 노래했다.

“도시락을 나눠주는 사역은 비대면으로 할 수 없는 사역이에요. 노숙자들과 쪽방촌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대면이 필수입니다. 하루빨리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처소 예배가 재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쪽방촌 주민들과 노숙자 대다수가 남자들이에요. 그들을 양육하려면 남성 순장님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봉사자들이 함께 섬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승자 집사도 한마디 거들었다.

“알코올중독 상담이라든지, 이·미용 봉사자들이 함께 섬겨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독고영 집사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예전에 봉사하셨던 분이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오겠다고 하였고, 또 다른 봉사자께서는 도시락 나눔사역에 힘을 보태고 싶다고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7월에도 도시락 나눔사역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기쁩니다.”

문의: 02-3215-3434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드라이브인 예배를 섬기며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고난의 시기’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내 삶도 마찬가지다.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한편으로는 감동과 감사함을 느끼는 역설의 시간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여러 변화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답을 얻기 위해 더욱 기도하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읽고, 묵상하면서 깊이 새기려는 노력도 더 열심히 하게 되었다. 특히 지난 4월 12일부터 드라이브인 예배를 섬기면서 내 삶의 의미와 내게 주어진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다.

드라이브인 예배를 섬기면서 내가 느낀 가장 큰 변화는 순종할 때마다 마음속에 사랑이 채워진다는 것이다. 나날이 더워지는 날씨로 인해 드라이브인 예배 시간이 앞당겨졌다. 드라이브인 예배를 섬기는 봉사자들도 앞당겨진 예배시간을 따라 더 일찍 나와야 하는 어려움이 생겼다. 요셉공동체는 3부 토요주일 예배(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늦은 시간에 귀가하기 때문에 이튿날(주일) 이른 아침부터 봉사



봉사자들이 드라이브인 예배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다.

를 준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은 나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 만약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의 나였다면 타성에 젖어서 주어진 사역들을 습관적으로 했을 것이다. 그러나 드라이브인 예배를 섬기면서 그런 내 모습이 변화 됐다. 함께 주차안 내팀으로 섬기는 요셉공동체 지체들과 서빙

고 온누리교회 주차사역팀 집사님들과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 예배 섬김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엄청난 따뜻함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전염병으로부터 안전과 편안함을 추구하려면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도 된다. 그런데 성도님들께서 주차장까지 나오신 것은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이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봉사자들을 향해 환하게 웃어주시고 손 하트를 날려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보람과 기쁨을 만끽했다. 무엇보다 드라이브인 예배 섬김은 나의 식은 마음에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 예배의 소중함과 간절함을 가득 안고 드라이브인 예배에 찾아오는 성도님들과 함께 봉사하는 동역자들을 보면서 예배의 소중함에 대해 묵상하게 되었다. 예배의 소중함을 너무 잘 알고, 이를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모든 동역자들의 의지와 행함을 보면서 내 삶에 자연스럽게 적용하게 되었다.

드라이브인 예배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야기를 쓰고 싶다는 도전을 품게 되었다. 매일의 새로운 삶을 기쁘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도록 더욱 기도와 말씀 묵상에 힘을 것이다. 드라이브인 예배를 통해 또 다른 터닝 포인트와 기쁨을 경험하게 하신 사랑의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임규형 형제(요셉공동체)

또 다른 터닝 포인트와 기쁨

2020년 하반기 예배참석 기준 변경

미등록교인도 예배당 예배 참석 가능 임시바코드 발급 및 본인확인 절차 실시

2020년 하반기부터 예배참석 기준이 변경된다. 미등록교인들도 임시바코드를 발급받거나 신분확인을 거치면 예배당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

임시바코드는 온누리교회 아이스쿨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신분확인은 현장에서 신분증과 휴대폰번호로 확인할 예정

이다. 임시바코드를 발급받거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다음에는 예배당에서 QR코드로 좌석을 스캔하고 착석하면 된다. 새가족과정을 이수하고 싶은 미등록교인은 추후 안내에 따르면 된다.

또한 온라인과 전화로도 예배당 예배 예약을 할 수 있다. 온라인 예배예약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전화예약은 온누

리교회 등록교인에 한해서 할 수 있다.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로 전화하면 된다.

영상예배는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CGNTV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다. 토요일예배 1~3부, 일요일예배 1~7부, 새벽기도회와 차세대 및 대학청년부,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에 배 등을 각 예배 유튜브 채널에서 드리고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5월 비전헌금 33개 선교사역단체 후원

2억8천2백만 원 기부

5월 비전헌금 2억8천2백만 원을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국내외 33개 선교사역단체에 기부했다. 온누리교회가 기부한 5월 비전헌금은 선교지 긴급구호품 및 비상식량,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등의 방역용품, 생필품(세제 및 휴지), 의약품(체온계, 해열제, 진통제, 소독약, 소염제) 지원, 교회 월세(렌트비) 및 생활비 지원 등에 쓰였다.

홍해 목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기도모임과 새로 시작하려던 사역이 모두 막혀있던 상황에서 온누리교회의 후원 연락을 받고 얼마나 기쁘는지 모른다”면서 “적절한 때 큰 도움을 주신 온누리교회와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아르만즈 목사는 “온누리교회가 후원해주신 헌금을 난민들이 집세를 갚는데 사용한 덕분에 그들이 거리로 쫓겨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감사편지

쌀 한 포대와 계란 한 판

관광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태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4월 초부터 6월까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공항과 국경을 전면 폐쇄하였습니다. 관광업과 관련된 모든 업종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쌀과 계란을 받은 현지인들이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다. 태국 내 지역 간 이동을 제한하였고, 꼭 필요한 생필품 가게만 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실업자들이 발생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학교가 격일제로 오프라인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있고, 조금씩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있지만 국가비상체제는 7월 말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과 주변 이웃들 중에도 직장을 잃거나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 고통당하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컸는데, 온누리교회에서 헌금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온누리교회에서 후원해주신 재난지원금 사용을 위해 특별히 어려운 30가구를 선정하고, 마트에서 쌀 5kg 33포와 계란 30판을 구입했습니다. 우리는 3일 동안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쌀과 계란을 나눠줬습니다. 지원받은 분들에게 한국에 있는 온누리교회에서 후원해준 덕분에 도울 수 있다고 설명했더니 하나같이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비록 쌀 5kg 한 포대와 계란 한 판이었지만, 어려울 때 도와준 온누리교회의 관심과 사랑이 현지인들의 마음속에 큰 감동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귀한 헌금을 보내주신 온누리교회와 성도님들께 마음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더 크게 축복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 김희태 선교사(태국)

예수 작가 작품 전시 및 판매

서울 시내 카페 3곳에서 작품 40여점 전시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기관 변동 코이노니아 소속 예수(발달장애인 화가들의 모임) 작가들의 작품을 서울 시내 카페 3곳에서 관람 및 구입할 수 있다. 예수 작가들의 작품 40여 점이 관악구 엘씨엘로 카페, 서초구 오페라빈로스터즈, 송파구 나시타카페에서 전시 및 판매되고 있다. 이번 예수 작가들의 작품 전시

및 판매는 각 카페에서 “예수작가들의 작품을 지역사회에 소개하고 싶다”는 요청으로 이뤄지게 됐다.

엘씨엘로 카페: 서울 관악구 관악로 245 지하 1층

오페라빈로스터즈: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43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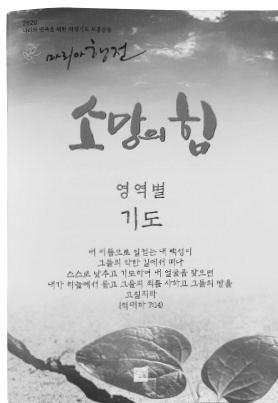
나시타카페: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길 21-23

기도책자 활용 ‘10가지 영역별 기도운동’

여성사역 유튜브 채널 및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여성사역본부에서 기도책자를 활용한 10가지 영역별 기도운동을 시작했다. 2020년 마리아행전 ‘소망의 힘’ 마지막 날 나눠준 기도책자를 보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중보기도하는 운동이다.

여성사역본부에서 배부한 기도책자에는 코로나19 재난 극복, 교회, 정치, 경제, 가정, 교육, 다음 세대, 사회, 문화 미디어, 북한과 통일 등을 주제로 10가지 영역별 기도문이 담겨있다. 기도책자가 필요한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알림판이나 여성사역본부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서 다운받으면 된다.



문의: 02-3215-3667, 3201

/ 홍하영 기자

마리아행전 강사들의 책 할인 판매

두란노서점, 두란노서원 온라인 주문 가능

두란노서점에서 2020 마리아행전 ‘소망의 힘’ 강사들의 책을 할인 판매하고 있다. 이재훈 담임목사의 <선한 그리스도인을 찾습니다>, <영적전쟁(THEOVERCOMER)>,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리라>,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의 <십자가에서 살아난 가정>, <예수 소망>, <한 시간 기도>, 이인호 목사(더사랑의교회)의 <기도하면 살아난다>를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이외에도 <나의 하루>(하용조 저), <성

숙의 길>(싱클레어 퍼거슨 저), <기도의 불을 켜라>(김병삼 저) 등 두란노서원 추천 도서 6권도 할인 판매한다. <생명의 삶>, <새벽나라이>, <예수님이랑 나랑>, <예수님이 좋아요>도 함께 구매할 수 있다.

도서주문은 두란노서원 홈페이지(www.duranno.com/onnuri)에서 하면 된다. 배송은 택배(10,000원 이상 무료배송)나 서빙고서점 매장 픽업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문의: 02-796-2310

슬기로운 가정생활 돕는 ‘멘토와의 티타임’

두란노어머니학교

두란노어머니학교에서 슬기로운 가정생활을 돕기 위해 유튜브 채널 ‘멘토와의 티타임’을 개설했다. 멘토와 함께 가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채널

이다. 성도들의 질문과 사연을 사전에 신청 받아 멘토가 답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코로나19 이후 가정생활 등 가벼운 주제부터 부부 갈등, 자녀와의 갈등, 배우자의 외도 등과 같은 심도 있는 고민까지 나눈다.

문의: 02-2182-9114



‘Children of Life, 생명력이 있어!’

한동대학교 참가자 모집

한동대학교 여름영어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 ‘Children of Life, 생명력이 있어!’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영어캠프는 8월 1일부터 14일까지 한동대학교에서 진행된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가 대상이다. 참가비용은 210만 원. 신청은 홈페이지(camp.handongedu)에서 하면 된다. 한동대학교 여름영어캠프에서는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동대학교 재학생, 졸업생, 원어민 교사들이 영어를 가르쳐주고, 신앙교육도 해준다.

한동대학교는 안전한 여름영어캠프 진행을 위해 철저한 방역계획을 세우고 있다. 입소 첫날 코로나19 전수검사, 1일 3회 발열 체크, 안전거리 유지 철저, 2인 1실 기숙사 사용 등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에 만전을 가할 예정이다.

문의: 054-260-3042

7월 12일부터 새가족 등록 과정 재개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새가족 등록 과정이 7월 12일(주일)부터 재개된다. 다만 정부의 시책과 관련해 새가족 등록 과정은 당분간 온라인으로만 실시할 예정이다. 새가족 등록 과정 신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나 각 캠퍼스 새가족 담당부스 혹은 목회행정실에서 하면 된다.

신간소개

인생 바꾸고, 세상 변화시키는 힘!



〈축복의 놀라운 능력〉
리처드 브런튼 저 | 박일환 번역
| 디비이 | 4,000원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주어진다면 어떨까? 여기 그 어마어마한 능력의 비밀을 소개하는 책 한 권이 있다. 리처드 브런튼의 〈축복의 놀라운 능력〉이다.

“내가 축복하는 것의 가치를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성경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은 심정이었다.”

이 책 도입부에 적힌 저자의 말이다. 이 책은 축복의 가치와 능력을 설명하고 있다. 축복을 하나님의 성품이자 능력이며,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소개한다. 또한 축복의 권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간증한다. 정죄와 비난, 불평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축복이 어떻게 일하는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축복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발견하도록 돕는다.

“그리스도인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이 어떤 권한(Authority)을 가지고 있는지 안다면

당신은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책은 2016년 뉴질랜드에서 출간되어 14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다. 현재 30개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6월 박일환 장로(양천공동체)가 한국어로 번역해서 출간됐다. 박일환 장로는 이 책을 한 마디로 ‘내가 만난 가장 놀라운 책’이라고 고백했다.

“한국의 많은 크리스천들과 이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힘을 가진 책이자 제가 만난 가장 놀라운 책입니다. 축복이야말로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크리스천들의 언어가 축복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함께 ‘기쁨’을 충전하는 부부



〈하루 15분, 부부의 시간〉
마커스 위너, 크리스 코시 저
| 두란노 | 10,000원

살면서 갈등을 겪지 않는 부부는 아무도 없다. 모두 크고 작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간다. 그럼에도 어떤 가정은 문제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떤 가정은 훌훌 털고 일어난다. 오랫동안 뇌과학을 기반으로 관계기술을 연구하던 저자들은 그 이유를 ‘기쁨’에서 찾았다.

〈하루 15분, 부부의 시간〉은 부부가 함께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 부부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저자들은 ‘행복한 가정’과 ‘불행한 가정’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부부가 함께 ‘기쁨’을 얼마나 경험하는지를 꼽았다. 그러면서 부부가 함께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 길러야 할 네 가지 습관을 제시했다. 함께 놀기, 감정에 귀 기울이기, 매일 감사하기, 리듬 기르기가 바로 그것이다. 이 네 가지 습관이 부부가 함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돕는다고 강조한다. 이와 함께 부부가 매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15분 활동도 제시하고 있다.

함께 놀기 활동으로 ‘눈을 마주하며 미소 짓기’, ‘저녁 데이트’, ‘관계 키우기’ 등을, 감정에 귀 기울이기 활동으로 ‘행복과 슬픔’, ‘기쁨의 회상’, ‘내가 좋아하는 것들’ 등을 제시한다. 매일 감사하기 활동으로는 ‘3x3x3 기쁨’, ‘아외데이트’, ‘사랑의 편지쓰기’ 등을, 리듬 기르기 활동으로 ‘쉽고 기쁨’, ‘우리 가정만의 독특한 향기 찾기’, ‘쉽고 키스 나누기’ 등의 활동을 제안한다.

이 책에서는 부부가 매일 함께 놀고, 대화하고, 감사하는 과정에서 ‘기쁨의 겹(함께 기쁨을 나눈 순간들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설명한다. 기쁨의 겹이 좁아질수록 부부 사이에 친밀함이 쌓이고, 기쁨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 하루 15분이면 된다. 결혼 생활을 갓 시작한 신혼부부, 오래가는 사랑을 하고 싶은 부부, 한집에 살지만 어느새 데면데면해진 부부 등 부부관계를 개선하고 배우자와 함께 기쁨을 충전하고 싶은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꼭 한번 가봐야 할 기독교 명소 - ‘제천 세계기독교박물관’

성경에 나오는 식물과 유대인들의 관습을 한눈에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깊은 산속에 성경에 나오는 식물부터 유대인들의 관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물관이 있다. 지난 5월 22일 개관한 ‘제천 세계기독교박물관’이다. 김종식 관장이 32년 동안 전 세계 각지에서 모은 성경에 나오는 식물부터 유대인들의 관습과 관련된 물건을 전시하고 있다.

제천 세계기독교 박물관은 4관과 식물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1관에는 성경 속 의상, 악기, 예수님 시대의 유물, 2관에는 토라, 탈무드, 예수님의 탄생과 장례와 관련된 물건을 전시했다. 3관에는 동전, 달란트, 저울 등이, 4관에는 농기구, 절기 등 유대인들의 관습을 볼 수 있는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이스라엘을 5천분의 1로 축소한 식물원도 있다. 김종식 관장의 안내와 해설을 따라 관람하면 짧게는 1시간, 길게는 2시간이면 충분히 돌아볼 수 있다. 관람객의 직분이나 연령에 따라 맞춤형 해설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식물원에서는 이스라엘 문화와 식물에 대한 이해부족이나 오역으로 인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식물들을 관람할 수 있다. 감람나무는 한글성경 번역 당시 중국의 감람나무로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는 올리브나무다.



제천 세계기독교박물관에 전시된 이스라엘 농기구.

또 예서가 장자권을 팔아버린 붉은죽은 보통 팔죽으로 알고 있는데 김종식 관장은 렌틸콩죽이나 병아리콩죽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요나가 더위를 피한 박녕쿨에 대한 오해도 풀 수 있다. 박녕쿨로 번역된 녁쿨은 사실 아주까리나무다. 박녕쿨보다 잎이 크고 넓고, 기후가 좋은 이스라엘에서 하루에 한 뼘이 자랄 정도로 생육이 좋은 나무다. 박녕쿨과 아주까리나

무를 비교할 수도 있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아주까리나무 그늘이 더 크고 시원해 보인다.

향유와 옥합도 흥미로운 전시물 중 하나다. 마가복음에는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구절이 나온다. 그런데 제천 세계기독교박물관에 전시된 옥합은 도무지 깨뜨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이에 대해 김종식 관장은 “옥합은 단단한 돌로 만들

어져 있고 입구는 밀랍으로 완벽하게 막혀있다”면서 “성경에서 옥합을 깨뜨렸다는 표현은 밀랍뚜껑을 뜯어냈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제천 세계기독교박물관에는 다양한 전시물들이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당시의 못, 인장, 거울과 렘돈, 데나리온 같은 당시의 동전도 만나볼 수 있다. 바알, 아스다롯, 드라빔 같은 우상도 전시하고 있다. 유대인 회당을 재현한 전시관에서는 유대인들의 토라, 문설주 등 유대인들의 문화도 체험할 수 있다. 제천 세계기독교박물관에 가면 이스라엘을 다녀왔거나 다녀오지 않았거나, 성경을 잘 알거나 잘 알지 못해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해설시간이 길기 때문에 사전에 예약하면 더욱 좋다. 김종수 관장은 “푸른 산이 있고 개울이 흐르는 제천 세계기독교박물관에 오셔서 생경한 성경에 나오는 물건도 보고, 힐링도 경험하십시오”라며 성도들을 초대했다. 입장료는 성인 1만 원, 학생 7천 원, 유아 5천 원이다. 가족과 단체할인도 있다.

문의: 043-651-0191

주소: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구학산로 1164-14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온라인 큐티스쿨 간증



/ 김태윤 성도(푸른누리공동체)

내와 함께 온라인 큐티스쿨 강의를 듣게 되었다. 나눔 속에서 부부 사이가 더욱 풍성 해짐을 새삼 느끼게 되어 감사했다.

이번 큐티스쿨을 통해 나에게 가장 크게 다가온 부분은 큐티에 대한 마음의 변화다. 첫 번째 변화는 율법 같았던 큐티가 이제는 은혜로 느껴지게 되었다. 큐티스쿨 강의를 듣기 전에는 큐티가 마치 율법처럼 느껴졌었다. 처음 교회에 다니게 된 이후부터 큐티를 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들었고, 그래서 숙제를 제출하는 학생처럼 의무감에 큐티를 했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자연스레 큐티를 멀리하게 되었다. 열매도 없고, 변화도 없는 크리스천으로 오랜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그러나 큐티스쿨 강의를 듣고 난 이후 달라졌다. 비록 시간을 정비하고 조용한 곳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여전히 어렵기는 하지만 큐티하고 싶고, 말씀을 알고 싶고, 묵상과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되었다.

두 번째 변화는 말씀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입술로 고백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 한구석에서는 성경 말씀에 근거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약속을 받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다. 설

세 가지 변화

교 말씀도 듣고, 책도 읽고, 기도를 해보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나눔 가운데서 혹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긴 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인가?’라는 질문과 고민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큐티스쿨을 듣고 나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소망하게 되었다.

세 번째 변화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소망이 생겼다. 강의를 통해 ‘큐티를 하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깨달음과 감탄을 많이 했다. 큐티를 통해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을 한 번, 두 번 연습하고 경험하게 되었다. 이런 경험을 반복하다 보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큐티스쿨은 여러모로 나에게 많은 영향을 준 강의였다. 무엇보다 크리스천으로서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길을 제시해주었다. 이제는 제대로 된 성경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한다.

온라인 큐티스쿨 간증



/ 남궁나래 성도(강남D공동체)

한때 뜨겁게 큐티를 한 경험도 있었으나 아 이를 놓고 키우며 바쁘다는 핑계로 큐티를 게을리 하게 됐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하게 되었는데 그 와중에도 내가 큐티를 잘 안다고 생각하며 빠르게 큐티를 해치우는 것을 노하 우가 생긴 것으로 여기며 합리화하기도 했다. 그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교제가 점차 메달라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마음에 온라인 큐티스쿨을 신청하게 되었다.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내게 있는 말씀의 뿌리가 굉장히 알아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멀어져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내가 꽤 오랜 시간동안 큐티 매너리즘에 빠져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큐티를 한 마디로 정의하면 무엇일까?”라는 질문이었다. 나는 그 질문에 “데이트”라고 답했는데, 매너리즘에 빠진 상황에서도 큐티를 쉬거나 게을러지지 않고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사랑하는 사람과 권태기가 온다고 헤어지지 않는 이유 때문이다. 큐티라는 프로그램 혹은 습관에 얽매어 율법적인 관점으로 큐티를 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라보며 방법론에 빠지지 말고, 날마다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기대감으로 데이트 하듯 큐티를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강의 동안 진행된 신명기 본문에서 계속 반복해주시는 구절들 속에 지금 이 시기 내가 새롭게 해야 할 것이 ‘예배’와 ‘말씀의 기초’임을 깨달았다. 무엇보다 말씀으로 하루를 열고, 아이에게 취침기도 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 말씀으로 기도해주고, 말씀을 나눠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었다. 큐티할 때마다 어려웠던 적용 또한 구체적으로 정하고, 하루 동안 말씀을 기억하며 실천하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코로나19로 예배당에 가지 못하고 답답함이 많던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매주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한 주동안 배운 내용을 큐티로 경험했더니 풍성한 일상을 보낼 수 있었다. 신앙적 침체기가 올 수도 있었는데 온라인 강의를 통해 큐티 과정을 듣게 하신 주님께 정말 감사하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해야겠다. 무너졌던 신앙의 기초를 날마다 재건하면서 더 깊이 만나게 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기대한다.

에스라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 이현우 다락방장(서대문공동체)

“처음 성경필사에 도전합니다”

‘성경필사’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파주 은광교회 양현희 전도사님이 생각났다. 2017년 겨울로 기억된다. 서대문공동체에서 ‘1다락방1사역’의 일환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섬기고 있는 파주 은광교회를 지원하고 있었다. 축구관련용품(운동복, 축구공 등)을 지원하려고 당시 요한다락방장이셨던 양준홍 방장님과 이순희 방모님, 순장님들과 함께 은광교회를 찾아가 함께 예배를 드렸다. 그때 나는 평생 처음으로 성경 필사본을 보았다. 학교 다닐 때 노트필기 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흐트러짐 없는 글자로 1,189장을 모두 손으로 썼다는 사실에 압도되어 나도 모르게 “주여, 주여” 소리가 흘러 나왔다. 전도사님이 성경필사를 한 이유가 궁금했었다. 그날 파주에서 돌아와 기도했던 기억이 새삼 떠올랐다.

성경필사는 접어두고라도, 나는 정말 한번이라도 양 전도사님처럼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성경을 읽은 적이 있었는지, 티끌만큼 작은 믿음 하나에 “너는 의롭다” 칭해주신 감사하신 하나님을 알고 싶은 의지가 얼마나 있는

지 기도했었다.

2002년부터 믿음생활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성경필사에 도전한다. ‘혹시 성경필사 참여자가 적어서 내가 할당 받는 성경 장수가 많으면 어떻게 하지? 8월 30일까지 필사할 수 있을까? 업무가 바빠서 필사할 시간이 안 되면 어쩌지?’라는 외침들이 나의 내면을 스쳐가는데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

“같이합시다. 최근 눈이 잘 보이지 않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만남의 기회를 주시는 것 같네요.”

마태신앙인(마누라 따라 교회에 온 남편을 일컬음)으로 또 한 번의 허들을 아내와 함께 넘어보자고 결심했다. 내가 믿음생활 시작한 것도 아내의 덕이 크다. 우리 가족이 구미에 살고 있을 때 온누리교회 장로인 윗동서와 처형의 전도로 아내가 교회에 나가고, 수원으로 이사를 오면서 나도 아내를 따라 수원 온누리교회 출석하기 시작했다. 나의 믿음생활을 이끈 가족들로 인한 감사의 마음이 크다. 이번 에스라 프로젝트에 대한 아내의 권면 또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부천 온누리교회 화평공동체 종강예배



/ 서승조 순장(부천 온누리교회)

잃었던 웃음을 되찾은 하루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포옹하고, 중보기도 하던 그 당연한 일들이 얼마나 축복된 시간이었는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다. 공동체 종강예배를 앞두고 그동안 온라인 화면으로만 보았던 공동체 지체들을 보고 주님이 주신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다.

부천 온누리교회 화평공동체 종강예배를 드린 주일 한 명 한 명 입장하는 지체들을 볼 때마다 마스크 너머 눈가가 축축해졌다. 내색은 못해도 오랜만에 인사를 나누는 이 시간을 모두가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졌다.

오랜만에 공동체 지체들과 본당에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우리는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에 “아멘”을 화답하며 예배를 드렸다. 매번 종강예배 드릴 때마다 함께 하던 축복과 뜨거운 포옹은 할 수 없었지만 서로 눈을 바라보며 사랑과 격려의 사인을 주고받았다.

“아이스께끼 있어요!”

준비한 이벤트가 시작됐다.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옛날 교복을 입고, 머리를 예쁘게 빗고 아이스스크림을 나눠주었다. 교회 마

당에서 한바탕 잔치가 열렸다. 순장님들은 옆에 서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나눠주셨다. 코로나19로 잠시 잃어버렸던 주님이 주신 기쁨과 웃음을 회복하는 시간이었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을 나누며 천국잔치를 즐겼다. 그리고 이어진 드라이브 스루!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차세대와 가정을 위한 시간이었다. 차세대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차량으로 교회를 방문했다. 오는 차량마다 찬양 블레싱, 고교생이 된 장로님 권사님의 아이스크림 선물과 순장님의 선물, 목사님의 미소가 그들에게 달려갔다. 차세대들은 그 사랑을 받아 누리며 반가운 손짓과 미소로 화답했다.

이번 종강예배를 기획하시고 준비해주신 목사님과 공동체 리더십분들께 감사하다. 함께 예배에 참가하고 천국잔치를 즐긴 공동체 지체들에게도 감사인사를 전한다. 작은 소망을 품고 모이기에 힘썼더니 하나님의 기쁨이 공동체를 휘어 감싼 하루였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총명한 사랑이 임한다는 것을 다시금 경험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오랫동안 잃었던 웃음을 되찾은 하루였다.

장로칼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자”

최명 장로
(서초C공동체)

믿음생활을 잘하기 위하여 애쓰는 성도들에게 한 마디 고언을 나누고자 한다. 이것은 나 자신에게 매일 되뇌이는 말이기도 하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 말은 ‘온 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

는 것’과 동일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매일매일 열심히 읽고 묵상하며 순종해야 한다. 말씀 묵상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친밀해지기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온누리교회는 <생명의 삶>을 통하여 큐티(QT)를 하도록 인도하고 있다. 나도 매일 새벽 CGNTV로 QT와 기도회에 참여하며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실천하기에 큐티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

우리가 쌓아온 신앙이 진짜인지, 현재 믿음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는 위기와 환난을 겪어보면 된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위기와 환난이 눈앞에 닥쳤을 때 원망하며 돌아서는지, 아니면 기쁘고 감사하며 사랑하는데 따라 믿음생활의 수준 차이가 드러난다. 위기는 기회고, 환난은 축복이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갑자기 들이닥친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위기이며 환난임이 틀

림없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을 이를 통하여 선을 이루실 것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믿고 우리 앞에 닥친 이 상황을 기쁘고 감사하며 사랑하기로 받아들이자.

코로나19 사태는 회개의 기회이기도 하다. 회개할 줄 모르는 성도들을 볼 때면 얼마나 불쌍한지 모른다. 회개하지 않는 삶이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나는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며 소홀했던 가정예배를 들여다보게 됐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매일 가족과 함께 다시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위기와 환난이 나에게는 가정예배를 다시금 세우는 큰 축복이 되었다.

나는 믿음생활의 균형을 잡기 위해 날마다 찬송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 가정을 위한 기도와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 제목을 정해 매일 기도하고 있다. 하루하루 내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기도하다보면 이전까지 내가 소홀했던 부분을 발견하게 된다. 더욱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게 만든다.

믿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한분만 바라보며, 그분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된다. 위기와 환난 앞에서 하나님을 선히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실천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와 노력이 필히 필요하다!

권사칼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기

김승희 권사
(경동 온누리교회)

전업주부인 나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늘 가족들의 위생을 생각하며 지내고 있다. 아침마다 남편과 아이들의 마스크를 챙기고, “손소독을 꼭 하라”는 조금은 귀찮은 잔소리도 매일 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삶이 정말 많이 변했다.

내게 가장 크게 다가온 변화는 예배이다. 코로나19가 한창 극성을 부리던 때 예배당이 모두 문을 닫았다. 매일 하던 일들이 갑작스럽게 멈추니까 개인적인 시간이 많이 남았다. 그 때문인지 어찌면 조금은 나태한 마음과 긴장된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냈던 거 같다. 유튜브 채널에서 하는 양육과정을 공부하고, 점점 단조로운 나만의 시간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SNS로 성경통독을 시작했다. 텅텅 비어버린 시간들을 채우기 위해 전자도서관에서 전자책을 빌려보거나 믿음의 글을 다시 읽는 시간도 보내고 있었다.

모두가 멈췄지만 어떻게든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고 있을 때 기쁜 소식이 들렸다. 마리아행전이 시작된다는 소식이었다.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마리아행전 참가신청을 하고 마리아행전 당일만 손꼽아 기다렸다.

마리아행전 행사 당일,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물샷틈없는 안전체크에 불안한 마음이 사라졌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라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수고하시는

스태프들을 보면서 근심걱정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

마리아행전에 참가하면서 믿음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실제로 믿고,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그 믿음이 내게도 생기를 기도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지 돌아보며, 지금까지 참된 믿음의 삶을 놓치고 살았던 나를 돌아보게 되었다. 이제부터는 내 위주의 질문들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믿으며,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다. 언약은 ‘소망의 힘’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 기도가 깊어졌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기도를 하러 교회 가는 게 나의 일상이었다. 그러나 상황이 심각해지고 예배당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면서 교회 가는 대신 집에 있는 나만을 위한 작은 공간인 기도방으로 향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바로 그 기도방으로 가서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고 조용히 혼자 기도했다. 마리아행전이 끝나고 나서 기도방에서의 나의 기도가 변했다.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게 되었다. 기도가 깊어졌다. 지금도 여전히 나는 그 시간이 되면 일어나서 기도방으로 향한다. 그곳에서 큐티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드린다. 그게 습관이 됐다. 이제는 눈을 뜰 때부터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기로 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 나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한다. 지금 서 있는 터널 깊은 곳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붙잡고 모든 상황을 이겨내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신앙에세이

“한 영혼이 있는데 어떻게 멈추겠습니까?”

변대섭 목사
(성북공동체, 서빙고
농어촌선교회)

지난주 서빙고 농어촌선교팀이 섬기는 미자립 농어촌교회들을 방문했다. 빠듯한 일정으로 인해 짧은 대화와 기도 이후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기 때문에 충분히 교제를 나누지 못한 것이 무척이나 아쉬웠다.

대면이 어려운 현재의 상황이 빨리 해결되기를 소망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 모든 지역과 삶의 영역에 영향을 끼쳤다. 농어촌교회도 마찬가지다. 다만 농어촌교회에서 발견되는 코로나19의 위기는 도시와는 다른 특별한 측면이 있었다. 현대 사회 농어촌이 가진 지역적 문제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여전히 존재한다.

오랜 세월 진행된 도시집중현상과 농어촌 인

구 고령화는 많은 가정을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들었다. 젊은 세대들의 이탈로 인한 노동력 감소는 농어촌 지역산업의 대부분을 외국인 근로자들이 감당하게 만들었다. 또한 지역 곳곳에 기독교가 전파되었음에도 불고나 무속신앙이 뿌리 깊게 내려있어 기독교와 교회에 호의적이지 않다.

기존에도 존재했던 농어촌교회의 어려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확진자가 발생해서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농어촌 대부분의 지역이 유동인구가 적은 한적한 농가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 자체가 적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출석인원이 20명이 채 되지 않는 농어촌지역 미자립교회들이 도시 교회들처럼 예배를 중단하거나 비대면 사역으로 전환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이 주는 간접적인 영향은 농어촌교회를 더욱 어렵게 했다. 도시에 있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전화해서 위

협하니 교회에 나가지 말 것을 요구했다. 예배에 대한 불합리한 방해와 압박도 나타났다. 대중매체로 인해 교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증가하기도 했고, 마을을 섬기며 전도하던 교회 사역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결국 10명이 예배드리던 한 교회는 이제 4명이 출석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오랜 전도 끝에 이제 막 믿음생활을 시작한 성도가 코로나19 이후 교회에 발걸음을 끌기도 했다.

안타까운 사정은 이뿐만이 아니다. 타 교회 지원이 끊기는 경우도 있었다. 재정적 후원뿐만 아니라 아웃리치나 정기적인 봉사의 손길도 취소되거나 중단되었다. 가뜰이나 위기였는데, 사역의 문마저 좁아지니 참으로 막막해 보였다. 농어촌교회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더욱 정면으로 받고 있었다.

“그렇지만 한 영혼이 여기에 있는데 어떻게 멈추겠습니까?”

대화 중에 한 목사님의 말씀이 마음을 울렸다. 눈을 들어보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농어

촌교회들은 치열하게 역동하고 있었다. 계속해서 교회들을 섬겼다. 당장 자신의 교회보다 자신들을 돕는 도시의 다른 교회를 먼저 염려하며 기도하고 있었다.

농어촌 미자립교회들에게 코로나19는 교회의 존속, 목회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럼에도 교회는 여전히 나아가고 있었다. 그것은 한 영혼을 사랑하고, 지역을 품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신음할지라도 멈추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농어촌교회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산업화 이후 성장한 많은 도시 교회는 성도들의 믿음의 터전인 고향(농어촌)교회에 빛을 지고 있다.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농어촌교회의 승리를 간절히 기도하며 겸손히 섬기는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도 농어촌 모든 교회 위에 강력하게 역사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하늘이 열리고 복음이 들리다

예수님의 물세례가 장차 받으실 세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다면, 우리가 받는 물세례는 예수님이 받으신 죽음의 세례가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 세례가 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세례와 함께 예수님과 연합될 때만 우리 안에 놀라운 은총이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살아나는 은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것처럼 물세례를 통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세례가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물세례와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세례를 체험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 능력의 근원을 그분의 인성에 임하신 성령의 기쁨 부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셨기에 모든 능력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비둘기 같은 성령의 능력과 기쁨 부으심으로 사역하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복음이 들려졌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의 뿌리에서 가지가 돋아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와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곧 지혜와 통찰의 영, 모략과 용기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사 11:1-2).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

나 된 분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능력을 내려놓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었고, 죄인과 같은 취급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분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신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하심으로 예수께서 선을 행하시고 마귀의 능력 아래 짓눌려 있던 사람들을 모두 고쳐 주시며 두루 다니셨습니다”(행 10:38).

‘나사렛 예수에게’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셨지만 나사렛 예수님였습니다.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겉으셔야 했고, 드셔야 했고, 잠을 주무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쁨 부으심이 임함으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패러다임을 보여줍니다. 죄인인 우리는 회개의 세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덧입는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물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참된 능력이 주어 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분은 노예였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결국 세상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할 수 없는 하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이 시대도 성령의 기쁨 부으심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행 2:38).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참된 회개의 세례와 이어서 주어지는 성령의 선

물입니다. 참된 세례를 경험했다면 성령의 선물이 약속된 것입니다. 참된 세례를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기쁨 부으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된 것과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으시고 비둘기 같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한 능력으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물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경험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자가 성령의 기쁨 부으심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결국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는 나의 자아를 부인하는 도구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놀랍게도 성령의 선물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까? 환경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아닙니다. 나를 가장 괴롭힌 범인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자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 있는 나는 진짜 내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자아를 만나십시오. 그 자아는 여러분을 살려주고, 참된 인생을 깨닫게 해 줄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진짜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경험하시고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신 것이 우리 삶의 패턴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 가운데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는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이 복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듣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공동체 온라인 여름방학 특강 과목

캠퍼스	담당 목사	강의명(특강 주제)	개강일(업로드 시작일)
서빙고	조준목	영적 뉴노멀	7월 16일/매주 목
	전병천	데살로니가 전후서	7월 15일/매주 수
	강미향	삶에 실체가 되는 구원론	7월 14일/매주 화
	박철웅	균형잡힌 성령론	7월 17일/매주 금
	최용준	임마누엘 일기	8월 7일/매주 금
	이비오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1)	7월 17일/매주 금
	송석근	신약성경 통독 (한눈으로 보는 교리)	7월 16일/매주 목
	한화수	기독교 교리사	7월 9일/매주 목
	박형준	요나서: 팀켈러의 방탕한 선지자	7월 14일/매주 화
	한총희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 읽기	7월 14일/매주 화
	신원석	미래사회 교회 & 영성	7월 14일/매주 화
	노규석	choice in the history	7월 14일/매주 화
	이기훈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1)	7월 7일/매주 화
	박성은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	8월 7일/매주 금
	여성민	Money 머니? 기독교 재정관	7월 22일/매주 수
	최성석	시편 서론	7월 24일/매주 금
	김요성	요한일서 읽기(실시간 강의)	7월 28일/매주 화 pm 8:00~9:00
	이찬우	신천지와 바른 신앙 (실시간 강의)	7월 8일/매주 수 pm 8:30~9:30
	고범석	동성애(실시간 강의)	7월 15일/매주 수 pm 8:00~9:00
	이서진(대청)	복음의 능력	7월 15일/매주 수
	원유경(대청)	예배,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7월 28일/매주 화
	김윤식(대청)	구약과 신약사이	7월 17일/매주 금
	이길택(대청)	인문서를 통해 만나는 기독교	7월 21일/매주 화
	배행삼(대청)	실때 보면 더 잘 보이는 복음서	7월 17일/매주 금
	정한호(대청)	사도신경에서 만난 나의 신앙고백	7월 15일/매주 수
	박천중(대청)	보다 깊은 묵상	7월 22일/매주 수
	안사무엘(대청)	성경에 빠지다(구약)	7월 31일/매주 금
	최종현(대청)	성령, 그 다양한 얼굴	7월 29일/매주 수

캠퍼스	담당 목사	강의명(특강 주제)	개강일(업로드 시작일)
양재	이상준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4가지 얼굴	7월 10일/매주 금
	김승훈	예비 부부를 위한 하나님의 가정 디자인하기	7월 24일/매주 금
	김영배	자존감 형성하기	7월 14일/매주 화
	김도균	잘 먹고 잘 사는 신앙생활	7월 14일/매주 화
	이기복	신앙생활은 일상생활이다	7월 24일/매주 금
	박태영	"남편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라 아내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라"	7월 17일/매주 금
	양성민	더 깊은 묵상을 통한 기독교 영성 형성	7월 24일/매주 금
	오민	구속받은 관계	7월 24일/매주 금
	홍기완	기도의 사람	7월 24일/매주 금
	조바울	복음서의 KEY	7월 24일/매주 금
	전신익	보라 새것이 되었고다	7월 17일/매주 금
	김대진	거룩의 능력	7월 17일/매주 금
	이정환	사랑의 언어	7월 24일/매주 금
	조현수	예수를 만난 사람들	7월 24일/매주 금
	이한규	포스트모던 시대의 복음 선포	7월 17일/매주 금
	윤마리아	성경적 세계관	7월 24일/매주 금
	백인규	순전한 기독교 C.S. 루이스	7월 24일/매주 금
	이원진	이스라엘 랜선 성지순례	7월 25일/매주 토
	김재석	일상예배	7월 14일/매주 화
	김정희	WOW!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7월 14일/매주 화
	김승수(대청)	광야학교	7월 24일/매주 금
	최성민(대청)	90년대생 이해하기	7월 24일/매주 금
	김용민(대청)	하박국으로 보는 인생문답: 기다리며 노래하기	7월 22일/매주 수
	윤현규(대청)	예수님 답변해주세요!	7월 24일/매주 금
	이준인(대청)	성령으로 달라진 내 성향	7월 24일/매주 금
	최대홍(대청)	길 위의 하나님	7월 22일/매주 수
	이우람(대청)	사도행전으로 함께 보는 초대교회사	7월 21일/매주 화
	한은선(대청)	함께 걷다 넘어진 그곳에서	7월 24일/매주 금
	김한국(대청)	다섯 가지 제사 이야기	7월 24일/매주 금

캠퍼스	담당 목사	강의명(특강 주제)	개강일(업로드 시작일)
부천	정형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역사이야기	7월 10일/매주 금
	조병홍	창세기 읽을수록 궁금해요	7월 10일/매주 금
	박사무엘	선지자적 영성	7월 10일/매주 금
	양재경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는 자	7월 10일/매주 금
	이윤재	사도행전의 땅을 가다 -역사 지리로 보는 사도행전	7월 10일/매주 금
수원	서현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	7월 7일/매주 화
	전재표	다시 보는 예수님의 비유	7월 9일/매주 목
	이상진	슬기로운 예배생활	7월 24일/매주 금
	유영순	좋은 어머니 스쿨	7월 8일/매주 수
대전	김상수	성경의 감을 잡아주는 감자성경	7월 17일/매주 금
	윤석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본 <이단열차기>	8월 7일/매주 금
	김성웅	그리스도인의 재정원칙	7월 12일/매주 일
	정현석	기독교 세계관 알아가기	7월 24일/매주 금
남양주	지대근	일과 성령	8월 7일/매주 금
	허원희	기독교적 생태학 특강	8월 7일/매주 금
평택	하청훈	세계 교회사-초대교회사	8월 7일/매주 금
인천	문장원	찬양의 능력	8월 7일/매주 금
	유수열	무너진 성전을 세우라 (학개서)	7월 12일/매주 금
	김종아	가정에서 배우는 기독교(입문)	8월 8일/매주 토
강동	송재호	기도하는 부모의 능력	7월 10일/매주 금
	오은규	행복한 가정을 위한 상담 및 코칭 전략	7월 24일/매주 금
	김병조	선교하시는 하나님 -기독교 선교사	7월 23일/매주 목
양지	이강현	뉴노멀 시대의 기독교 (실시간 강의)	8월 9일/매주 일 pm 2:30~3:30

*문의: 각 공동체 양육총무, 담당목사, 캠퍼스 양육담당간사

CGNTV 개국 15주년 기념

시청수기 공모전



CGNTV와 함께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공모 주제

- CGNTV 프로그램 시청을 통해 느낀 감사와 회복의 이야기
- 선교지에서 경험한 CGNTV 시청에 관한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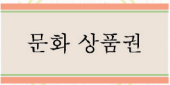
접수 기간

- 2020년 6월 29일(월) ~ 8월 28일(금)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 도착분까지만 인정
- 당선작 발표: 2020년 9월 4일(금) - 시상식: 2020년 9월 중

공모 형식

- 글 수기 공모
 - 한글, 워드 파일 및 구글 설문 *분량: A4용지 1~2장 내외, 자필 작성도 가능
- 영상 수기 공모
 - 스마트폰 또는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 *분량: 2~5분 이내 촬영한 영상(스마트폰 촬영도 가능)

시상 내역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5명)	입상 (10명)
				
스마트폰 (100만원 상당)	TV (50만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 (15만원 상당)	문화 상품권 (2만원 상당)	커피 기프트콘 (1만원 상당)

자세한 참여 방법은 CGNTV 웹사이트 www.cgntv.net에서 확인하세요 (문의 : 02-3275-9518)